



캐나다의 사고차량 견인 및 수리 관련 보험사기 규모 추정 결과

정인영 연구원

연구

캐나다 온타리오 주는 자동차사고 치사율과 상해율이 낮지만 운전자는 캐나다에서 가장 높은 보험료를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Aviva는 차량견인 및 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보험금 누수에 주목하고 이를 조사한 결과, 보험사기 규모가 청구금액의 약 57%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함. 견인 및 수리비용 과잉 청구로 인한 소비자의 불필요한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업계와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촉구됨

■ 캐나다 온타리오 주는 자동차사고 치사율과 상해율이 낮지만 운전자는 캐나다에서 가장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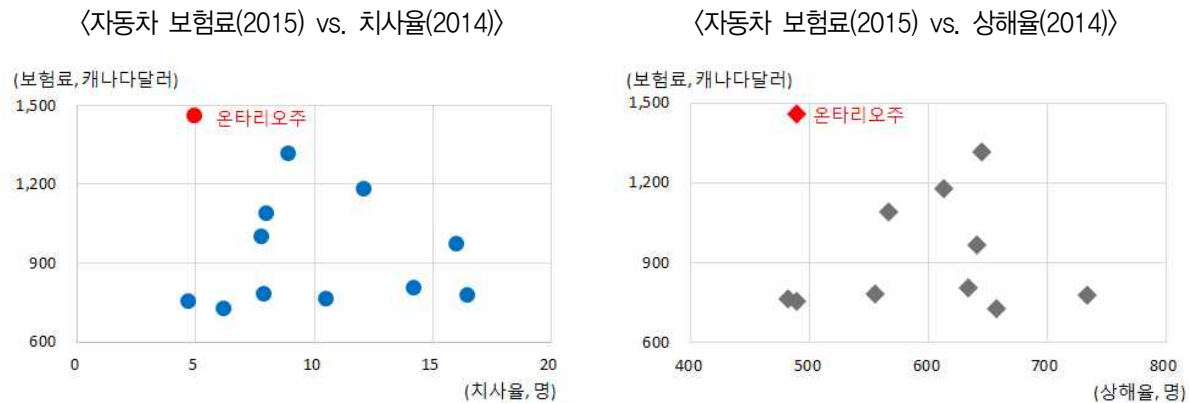
- 2014년 기준, 온타리오 주의 자동차사고 치사율(Fatality Rate, 운전자 10만 명당 5.0명)은 캐나다에서 두 번째로 낮고, 상해율(Injury Rate, 운전자 10만 명당 489.7명)은 네 번째로 낮음¹⁾
- 그러나 2015년 기준 온타리오 주의 자동차 보험료는 차량당 평균 1,458달러²⁾로 전국 평균(930달러) 대비 약 55% 높으며, 퀘벡 주(724달러)에 비해서는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됨³⁾

■ 이와 관련하여 Aviva는 교통사고 이후 차량 견인 및 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보험금 누수 현상에 주목하고, 견인트럭 운전사 및 자동차 정비소 등을 대상으로 한 추적조사를 실시함⁴⁾

- 견인차량이 사고현장에 도착한 시점부터 손상된 차량이 수리 완료될 때까지의 전 과정을 기록·추적함
 - 수사관과 자동차전문가가 충돌사고로 손상된 10대의 차량을 구입, 각 차량에 대한 수리범위 및 비용에 대한 평가금액을 수리 후 정비업체의 청구금액과 비교함으로써 사기 규모를 추정함

1) Minister of Transport(2016), "Canadian Motor Vehicle Traffic Collision Statistics 2014"
 2) 본고에서 달러는 모두 캐나다 달러임
 3) Thestar(2017. 4. 18), "Ontario's auto insurance system one of the least effective in Canada, report finds"
 4) Aviva Canada(2018. 3. 12), "Canadians are paying billions for auto insurance fraud"

〈그림 1〉 캐나다의 주별 도로 안전도와 자동차 보험료 간 관계



주: 치사율과 상해율은 운전자 10만 명 기준

자료: Marshall(2017); Fair Benefits Fairly Delivered; Minister of Transport(2015)

■ 조사결과, 10대의 손상차량 중 9대에 대한 수리비 청구가 사기로 판명되었고, 그 규모는 청구금액의 약 57%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함

- 사기로 판명된 9대 차량에 대한 청구 금액은 58,328달러로, 각 차량을 전문가가 재검토한 결과 실제 수리에 소요된 비용은 25,148달러로 조사되어 약 57%가 과잉청구된 것으로 밝혀짐
 - 사기가 확인된 9대 차량에 대한 전문가의 최초 손해감정평가액은 27,657달러였음
 - Aviva는 이 같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자동차수리 사기로 소비자가 연간 약 5억 4,700만 달러의 비용을 추가 부담하는 것으로 추정함
- 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사기유형에는 수리비 과잉청구, 차량에 대한 고의적인 추가 손상, 제공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한 청구 등이 있음

■ 견인 및 수리비용 과잉 청구로 인한 소비자의 불필요한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업계와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촉구됨

- 업계는 제3자 소개비(Referral Fee)⁵⁾ 제공 금지, 공인정비소 이용에 동의하는 고객에게 할인 허용, 보험회사 간 사기조사결과 보고 및 공유 등의 규제를 정부에 건의함 **kiri**

5) 견인차량이 특정 정비소로 사고차량 이송시킴으로써 지불하는 비용